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계산되지 않는 회개 (호세아 6:1 - 11)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는 두 문장은 호세아서의 핵심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때리시다가도 쓰매 주십니다.

1. 속한 회개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2절).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못짓을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은 이삼일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래 지체되지 않고 시급하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지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얕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비인격화하므로 우리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주와 역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2. 변하는 사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엎여지는 이슬갈도다"(4절).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는 사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신 바였습니다. 호세아가 자식과 남편을 버린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참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인애는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침 햇빛이 반짝이는 이슬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핍박과 고난이 올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섬섭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3. 숨길 수 없는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6절).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번제물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야 하는 희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암 5:21-24)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너 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었나 유익하뇨(중략)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중략)너희가 손을 펼때에 내가 내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1:11-15).

죄를 안고서는 아무리 큰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7절).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신실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크고 작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은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8-9절).

제사장들이 강도들과 같이 살인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하는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셨고 그들이 행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때 돌아가면 좋을텐데 악하므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만합니다. 이렇게 죄는 죄를 낳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끝없는 회개, 계산할 수 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죄,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구총회 개최 - 2월 26일(주) 3부 예배 후 -

교구위원회(위원장 : 양춘경 장로)는 26일(주) 주일 3부예배 후 교구총회를 갖는다. 교구총회는 현재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갖게 되는 만큼 교구 일

꾼들은 빠짐없이 교구총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참석 대상은 교구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이다.



교회회계,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로

교회는 금년부터 김영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출에 지금보다 더 세밀한 회계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수증 제출 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니 각 부서는 이에 유념하여 지출에 임해 주

기를 당부한다.

오정수 장로 무혐의 처분

오정수장로에 대하여 홍성주의 6명이 의정부지방법검찰청에 고소한 건 모두에 대하여 2017년 2월 16일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홍성주의 6명은 오정수장로가 원로목사 사택에 대한 근저당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운영 회사를 위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교회재산을 횡령하였고 오정수장로 임의로 매월 900만원씩 원로목사 사례비를 지급하여 교회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가격을 132억원으로 부풀려 구입하고 허위로 60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수사결과 오정수장로는 원로목사 사택구입을 위하여 수익원을 대여한 사실 등이 은행계좌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 서울교회 합계잔액시산표 및 당시 재정위원장이 장로들에게 설명한 후 재정위원장

명으로 사무국에서 이를 작성한 것이라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오정수장로가 서울교회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원로목사 사례비지급에 관하여도 교회 대체 전표나 교회의 자금집행절차를 통해 지출된 점과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오정수장로가 교회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가페타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교회의 합계잔액시산표 상의 차용근거와 매도인 백성학의 진술 등에 비추어 오정수장로가 허위매매계약을 하거나 60억 상당의 원금이나 이자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박노철목사 지지자들은 작년초부터 꾸준히 재정비리를 이슈화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 회계장부 외부 감사와 오정수장로 사기 및 횡령을 들어 교인들을 호도하고 인터넷 매체에 허위 제보하여 서울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회계 장부 외부 감사건은 업체를 선정하고 서류를 갖추어 오면 응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갖추어 오지 않고 업체 선정도 하지 않은채 마치 교회가 외부 감사를 응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도 재정비리를 운운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오정수장로의 의정부지방법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박노철목사 지지자들은 더 이상 개인은 물론 재정문제를 언급하며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기로 바란다

이종운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Ⅲ

1.내 멨을 메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 받은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친히 설정해 주셨다. 멨을 메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1) 복종한다

정복자의 멨을 메는 이는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소나 말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학생이 스승에게 순종하듯 정복자의 멨을 메는 이는 정복자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는 이는 그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한다. 삶과 생각, 계획, 일을 지도받고 인도 받아야 한다. '내 멨을 메라'는 말은 내가 나로 인해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네 주인이 되고 너는 내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나를 율법을 주고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받을 수 없다면, 너는 나를 구원의 주로 받을 수 없다. 내 멨을 메지 않는다면 너에게 참 쉼은 없을 것이다."

(2) 일한다

소나 말의 어깨에 멨을 메게 하는 이유는 일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제자들의 어깨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멨에 역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

기 위해 주신 것이다. 주님의 팀(team)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병사요, 그리스도의 성전의 목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열 처녀 비유에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쫓겨났다.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악하고 게을러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쫓겨났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은 자도 지옥에 던져졌다. 예수께 속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멨을 메었는지 아닌지를 물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멨을 메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 할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멨을 메지 않은 자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한 배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멨을 메었느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닌 지를 물어야 한다.

(3)함께 일한다

두 마리 소에 하나의 멨을 메일 경우에는 균형형을 잘 잡아서 메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일은 힘들고 시간은 길다. 이

때 많은 동역자가 힘을 함께 모으면 쉽다. 예수님이 '나의 멨을 메라' 하셨다. 농부의 멨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멨을 함께 지고 가라는 것이다. 고전3:9. 고후6:1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멨을 메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한다. 복종의 멨을 메고 가야 하므로 겸손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 멨을 메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맺는 말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 멨을 메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나 일은 어렵고 길은 멀 때 우리는 종종 절망의 벽에 부딪친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② 예수님의 멨에는 쉬고 그의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워 누구나 질만한 멨에다.

③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한다. 그 쉼에는 주어진 쉼이 있고, 찾아진 쉼이 있다. 전자는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온 쉼이요(롬5:1), 후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을 말한다.(빌4:6-7)

죄, 가난, 무거운 영혼(근심, 염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쉼이 되신다.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 근심, 고통하지 말고 더 크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로 오라. 세상의 선생에게서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고 그의 멨을 메자. (다음 주 계속)

2017년, 일꾼들에게 듣는다!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수 집사
(스데반회 회장)

격동기를 맞고 있는 서울교회의 안수집사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때입니다. 따라서 2017년 스테반회는 서울교회 중직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의 서울교회는 비록 제

한된 공간에서의 예배지만 기쁨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 하며 거저된 자가 강대상에서 예배를 휘파하는 모습을 안 보는것만으로도 크나큰 감사입니다.

찬양대, 교육부서, 예배위원들의 자리가 여기저기 비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노파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어도 필요한 곳에

는 솔선하여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 둘 모아져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테반회는 참 위로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 앞장서며 서울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회복하는데 최선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찬진 권사
(제2권사회장)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중책을 맡기시고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대할 때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해산(解産)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피눈물 쏟으며, 그 고통을 참아가며, 죽음을 넘나들 때, 해산(解産)의 기쁨이 고통을 잊게 하듯, 주님 바라보며 기쁨이 넘칠 때까지 인내(忍耐)하고 또 인내하겠습니다.

올해 총회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합니다. 흠어진 권사님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태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서울교회 권사님들은 능(能)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은 진정한 용기를 주고, 뜨거운 사랑을 주고, 때론 엄정한

힘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품어 봅시다.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요 그 부친은 헬라인이며(행 16:1), 외조모 로이스의 교훈을 이어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를 잘 가르쳤고(딤후 1:5),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아들 디모데(디모데후서 1:5)를 잘 키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상의 믿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먼저 말하고 나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삶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아야 할 것은 신앙이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신앙이란 것을 오직 신앙만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힘이란 것을

~~~~~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동역자들인 2권사회지도 목사님과 임&역원, 모든 회원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서울교회 현실이지만 서로격려하고 기도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잘 견뎌내도록~

힘을 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권사회가 되어 <참된 교회로의 회복을 소망하는 서울교회>가 하루 속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고,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며, 사랑의 섬김이 넘쳐나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서울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다시 회복 되어 기쁨의 눈물을 펄펄! 쏟아 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긍휼을 베푸신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권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믿음의 초석을 굳건하게 하여



장호림 권사  
(제1권사회장)

2017년도 제 1 권사회 회장직을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며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목표로 하고, 행동지침으로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인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고 또 실천 해야 함에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 비상 상황이다 보니 제1 권사회에서 무엇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주의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을때 항존직에 임명된 제 1권사회 소속 권사님들과 함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또한 가장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서울교회에 기회를 주시어 믿음의 초석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써 쓰여지는 서울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권사회이기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며 거짓과 교만이 아닌 사랑과 위로를 실천 해 나가는데 제1권사회 권사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달라, 본인들의 뜻이 달라서 비록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는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원하든, 원

하지 않든 분명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권사님들과 같으리라 가슴 아픈 고백을 해봅니다.

한 지도자의 거저되고 잘못됨이 성도 들간의 갈등으로 서로 찢기고, 할퀴는 상처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 갈것이며, 진정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때가 어서 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옴에게 크나 큰 고통과 아픔, 어려움의 시련을 겪게 하셨지만, 옴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서울교회에도 진실을 밝혀 주실 그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혜를 모으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십시오



윤명구 집사  
(13교구)

살롱!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때면 흔히들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으나, 초심의 배경에는 화평과 사랑의 분위기보다는 고난과 분란에 처했음을 우리들 스스로가 자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열심히 노력한 덕에 부와 명예를 거머쥔 부자가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여흥과 탐심으로 허비함에 가정과 건강까지 잃게 되자 "차라리 없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흔한 한탄성 이야기와 유사한 경우라 봅니다.

이렇듯 초심의 성립조건을 돌이켜보면, 근면, 겸손, 솔선수범, 일사불란(一絲不亂) 등 성경의 가르침인 순종과 헌신하는 조건들만이 함께 하는 분위기였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지금 교회분열과 교우들이 흩어지는 이산(離散)의 힘들기만 한,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를 돌이켜 보면, 6년전에는 서울교회를 섬긴다는 우리들 스스로의 자부심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까지 받을 만큼의 분명한 초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초심에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함께했던 신행일치의 섬김과 헌신의 일사분란 함이 주 원인이었음을 아람답기만 했던 우리 서울교회가 헤치고 찢어짐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지금에서야 주님께로서는 우리들에게 어렵풋이나마 느끼게 해주시고 있음에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초심(初心)!”

모두들 알면서도 너무도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절대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로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이 가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우리들 영혼의 눈이 감겨 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탓에 그것들을 못보고 있다는 말씀은 묵상(默想)해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님 같은 확고한 신념과 윤리를 가르치실 목회자가 부재 상태입니다만, 우리교회에는 당회라는 공동운영체와 교회의 기준이 되는 정관과 운영규정이 있으므로 당회를 믿고 당회와 함께하는 순종의 섬김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이는 기준이 흐트러지면 이견의 난립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감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회에서도 귀와 눈을 개방하시고 교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청하시어 교회 섬김과 헌신이 편향되거나 위축됨이 없는 기회가 교우들에게 부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독불장군으로 인한 공의(公義)와 선(善)은 없음을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지난 6년전을 돌이켜 보면, 교회의 일이 많았음에, 불만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즐거움으로 함께 섬겼음의 추억을 우리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겼듯이, 교회 섬김에 전심으로 함께하는 자세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서울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교만해진 우리들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였음을 회개 자복하고 겸손해짐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함께해야할 중요한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을 50%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함을 행동으로만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뻐고 착한 언행으로 서로가 위안을 받고 격려하는 겁니다

교우들간 사랑한다 함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안하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참회의 기도가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주일, 교회당 밖에서는 다소 소란함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배 가운데 갈급한 영혼을 적시는 축축한 단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랑부, 청년부 예배는 정상화 되었고, 나머지 부서도 곧 정상화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당회를 신뢰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박노철목사가 통장 비밀번호 변경으로 마비되었던 교회 재정 업무가 지난 4주간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시므로 우선 급한 부분은 해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부디 서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신학의 기수며 합동신학대학원 부총장인 이승구목사님께서 주일예배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서울교회 당회 올림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9일(주) 영안교회 주일예배 설교한다. 23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여한다. 24일(금) 서울여대 8대총장 취임식에 참석한다.

■ 정년퇴임 : 2교구 최형열 장로 성남 수정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2월 28일 (화)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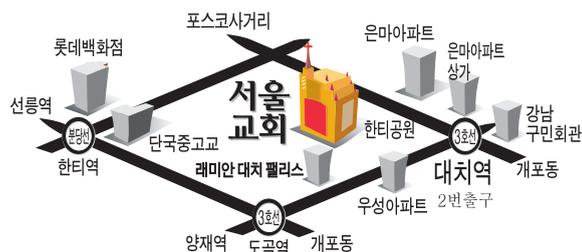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도록
2.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3.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 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수 요 예 배   | 짧은이 예배            | 오후 2시      |
|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